

금강산 가는 길

권혁진*

국문요약

금강산은 국내 명산 가운데서도 유산기가 가장 많이 전해진다. 본고는 철원, 고성 이외에 화천, 양구, 인제에서도 금강산 유람을 떠났다는 것에 주목하여 금강산 가는 길을 살펴본다. 철원을 지나 금강산을 가는 길을 남효온, 윤휴 등이 걸었다. 김화를 지나 창도역에서 금강산을 향해 동쪽으로 갔다. 포천에서 갈말읍을 거쳐 김화로 가는 경우는 더 많았다. 화천 산양역을 지나 금성을 잇는 고개를 넘기도 하고, 화천 사창리에서 학령을 넘어 김화에 이르기도 했다. 산양역에서 마치를 넘어 김화로 간 후 금성으로 향하기도 했다. 양구에서는 두타연을 지나 문등리로 향하는 길이 내금강까지 가는 최단 경로였다. 양구군 동면 임당리에서 돌산령을 넘어 해안으로 향한 후, 해안에서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로 가서 응봉령을 넘어 속사촌에 들린 후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동해안을 따라 금강산 가는 길은 조선 최고의 유람코스였다. 금강산뿐만 아니라 관동팔경이 소재하여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걸었다. 간성을 지나 도착한 고성에서 해금강으로 갔다. 외금강으로도 갔으며 북쪽으로 이동하며 관동팔경인 총석정과 시종대까지 구경하기도 했다.

주제어: 금강산 유람 경로, 철원 노선, 화천 노선, 인제 노선, 양구 노선, 고성 노선

* 강원한문고전연구소

I. 서론

금강산은 담무갈보살이 머무는 불교의 성지로 알려졌다. 보살이 머문다는 믿음은 원나라에까지 알려져 ‘바라건대,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보고 싶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라는 시를 지으며 동경하였다. 또한 금강산은 삼신산 중의 하나라 생각했으며, 빼어난 경치로 인해 앞다퉈 금강산을 유람했다. 노영(魯英)은 1307년에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담무갈현신도」를 그렸고, 이후 명나라 황실과 중국 사신을 위한 금강산도가 많이 그려졌다. 18세기 전반기에 정선(鄭敼)을 필두로 직접 금강산을 찾아 실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인들은 한시와 유람기를 남겼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명산을 유람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금강산은 대표적인 유람처가 되었다.

금강산은 국내 명산 가운데서도 유산기가 가장 많이 전해진다. 알려진 것만 해도 170여 편에 달한다.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한국학토대사업단의 ‘금강산유람록 번역 및 주해’ 팀에서 번역한 바 있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 유람 경로를 살펴본다. 유람 경로에 대한 연구는 정치영에 의해 시작되었다(정치영 2003; 2014). 서울서 출발하여 풍전역, 김화, 직목역, 창도역까지 가서 일부는 추지령을 넘어 해금강에 이르렀고, 나머지는 단발령을 넘어 내금강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영숙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금강산으로 향한 사람들은 곧장 내금강으로 갔으나, 그 외 지역에서 출발한 유람객들은 동해안의 명승을 두루 유람하고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다(이영숙 2017; 2020). 한양이나 근기 지역에서 출발한 인물들의 유람로를 세분화하여 곧장 금강산으로 향한 경우와 금강산을 중심에 두고 남쪽 지역의 명승을 유람하고 금강산으로 향한 경우, 북쪽 지역의 명승을 유람하고 금강산으로 향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고태규(2018)는 유람 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한양에서 출발해서 북쪽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한양-철원-김화-창도(또는 회양-창도)-단발령-내금강 코스이다. 둘째는 그 반대 코스이다. 한양에서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외금강으로 들어가는 코스다. 그밖에 원주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춘천에서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내륙 코스로 춘천-화천-김화-창도-단발령-내금강 코스이다. 박부원은 문화콘텐츠 관점에 의해 유산기를 접근하거나, 유람 경로의 활용적 논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했다

(박부원 2020). 기존의 연구들은 철원과 고성 의 길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본고는 철원, 고성 이외에 화천, 양구, 인제에서도 금강산 유람을 떠났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금강산 서쪽인 개성과 이천에서 출발했을 때의 경로, 금강산 북쪽인 회양과 동해 북쪽인 안변, 통천에서 유람하던 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곡(李穀, 1298~1351)은 1349년 가을에 금강산 및 동해안 지방을 유람하고 「동유기」를 지었다. 8월 14일 송도를 떠나, 21일 천마령을 넘어 금강산에서 30리 떨어진 장양현에서 유숙했다. 송도부터 금강산까지의 간략한 여정은 한시로 보충할 수 있다. 철원에 들러서 「충숙왕이 철원에서 사냥할 적에 고석정에 올라 절구 한수를 남겼는데, 이때 안부(按部) 정공자후(鄭公子厚)가 객관에서 썼다. 그리고 뒤에 삼장법사(三藏法師) 조순암(趙順菴)도 그 운에 의거해서 응제하였다. 이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삼가 절구 두수를 지었다」를 짓는다. 그의 발걸음은 김화로 향하였다. 「김화역에서 묵는데 밤에 비가 내리다」가 『가정집』에 남아 있다. 「금성현에서 묵다」와 「천마령 위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가 이어서 실렸다. 산문과 한시를 통해 송도-철원-김화-금성-천마령-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은 1709년 5월 26일에 이천 부사에 제수되어 7월에 부임하였는데, 이해 9월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유금강산기」와 115수의 시를 창작하였다. 이천은 철원 서북부에 있는 군이다. 이천을 출발하여 인접한 평강 땅 적비원(赤霏院)에 도착하였다. 여울을 건너 김화, 금성, 창도와 통구를 거쳐 단발령을 넘었다. 김화서부터의 여정은 이곡과 동일하다.

김도수(金道洙, 1699~1733)의 「풍악별기(楓岳別記)」는 1723년에 작성되었다. 3월 21일에 적주(赤州)에서부터 풍악산 유람을 시작하였다. 통천 태수와 함께 유람하자는 약속을 하였기에, 곧장 추지령(楸池嶺)¹⁾을 넘어 먼저 총석정과 금란굴 등의 여러 승경을 관람하고, 고성으로 길을 떠났다. 해산정에서는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묵고, 삼일포에서는 배로 노를 저으며 놀다가 발연(鉢淵)부터 외금강을 유람하였다.

민치완(閔致完, 1838~1911)은 통천읍에 도착하여 밥을 먹은 뒤에 주령(酒嶺)²⁾에 올랐다. 회양의 온정동을 지나 천리령(千里嶺)을 넘었다. 단발령

1) 추지령(楸池嶺): 회양과 통천의 경계에 있는 고개.

2) 주령(酒嶺): 회양과 통천의 경계에 있는 고개. 추지령 아래에 있다.

을 넘지 않은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넘자 장안사가 나타났다. 『지강문집』 속 「향금기행」의 기록이다.

이병렬(李秉烈, ?~?)은 1808년 봄에 고산역(高山驛)³⁾에 부임한다. 문천(文川)을 지나 숙릉(淑陵)을 배알하고 덕원(德原)에서 유숙하였다. 안변부를 거쳐 회양부에서 유숙하고, 화천점(花川帖), 신읍점(新邑帖)을 거쳐 장안사로 들어갔다. 안변에서 철령을 넘어 회양에 들렀다가 화천, 신읍을 통해 장안사로 가는 노선이다. 회양부사를 지낸 김수증(金壽增, 1624~1701)도 이 길을 이용해 금강산을 유람하고 1680년에 「풍악일기」를 남겼다.

II. 금강산 유람 경로

1. 철원을 경유하는 노선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은 1485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를 남긴다. 그는 “백두산은 여진의 경계로부터 일어나 남쪽으로 조선국의 해변 수천 리에 이어져 있다. 산 중에 큰 것으로는 영안도에 오도산이 있고, 강원도에 금강산이 있고, 경상도에 지리산이 있는데, 천석이 가장 빼어나고 기이하기로는 금강산이 으뜸이다.”라고 평하였다. 서울에서 출발한 그는 보개산을 지나 철원 고동주 들녘을 지나 백 리를 가서 김화에서 묵었다. 김화현을 지나 금성 향교에서 묵고, 창도역을 지나 보리진을 건너 신안역에서 묵었다. 통상적으로 창도역에서 통구를 거쳐 단발령을 넘는 것이 금강산 장안사를 행하는 지름길인데 더 북쪽으로 향한 것이다. 신안에서 화천을 거쳐 추지령을 넘어 통천을 향했다. 총석정을 구경하고 남하하여 금강산 신계사로 들어갔다. 보개산을 지났으니 연천을 지났고, 고동주(古東州)인 철원은 북관정이 있는 철원을 관대리이다.

윤휴(尹鑄, 1617~1680)는 「풍악록(楓嶽錄)」을 1672년에 지었는데 철원과 김화, 창도역까지의 길이 같다.

3) 고산역(高山驛): 함경도 지역의 역도(驛道) 중 하나인 고산도(高山道)에 속한 역이다. 고산군(高山郡)은 함경남도 안변군의 남부 지역이었다가, 현재는 이북의 강원도에 속해 있다. 찰방은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이다.

식사를 끝내고 철원 고을을 향해 가다가 용담 고개 위에 올랐더니 동북으로 산이 확 트여 몇백 리가 흰기 바라다보였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거기가 평강 지경이라고 하였다. 한낮에 철원 읍내에 들렀더니 주수 권공 순창(權公順昌)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찾아와 간단한 술자리를 베풀어 주었는데 송이버섯·팔배·머루·다래 등 산중 별미를 두루 맛볼 수 있었다. (중략) 28일(신축) 맑음. 아침에 주수가 와서 함께 북관정에 오르는데 평퍼짐한 넓은 평야가 백 리 멀리 뻗어 있고, 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은 금학산인데 그것이 번개 가서 보개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들 가운데 서너 개 웅기종기 언덕이 있는데 그것은 보개산이 번어나온 종적이라고 하였다. 간단히 술 한 잔 나누고 작별했는데, 그때 마침 시원한 바람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데 높은 산 가파른 절벽 위에는 이미 가을빛이 역력하였다. 정자가 큰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어 동으로는 궁예의 유허가 보이고 서북으로는 보개산·송암산 등을 바라볼 수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데 오르면 시상이 떠오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으나 그때는 시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중략) 드디어 금화를 향해 출발하여 오다가 시냇가에서 쉬고는 금화 고을을 지나는데 앞길에서 바라보니 아름다워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앞에 비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홍 감사가 순의(殉義)한 곳이라고 하였다. 말에서 내려서 읽어 보니, 평안도 순찰사 홍명구 충렬비(平安道巡察使洪命耆忠烈碑)라고 써어 있었다.

29일(임인) 맑음. 역리들이 술과 과일을 가져와 대접하였다. 아침에 출발하여 직목역리(直木驛里)에서 말에게 꼴을 주고 외삼촌을 대신해서 회양 군수에게 편지를 써 역졸을 주면서 전하라고 했다. 중치(中峙)를 지나니 금화와 금성의 분계점이라는 돈대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서쪽으로는 지세가 구불구불하면서 동쪽으로 높아지고, 동쪽으로는 지세가 점점 낮아져서 물이 모두 동으로 흐르고 있었다. 재를 넘어 10여 리를 더 가 큰 시냇가에 이르자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 물건을 교역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금성 장터이고 시내 이름은 남대천이라고 했다. (중략) 아침에 출발하여 창도역에서 말에 꼴을 먹였다. (중략) 아침에 출발하여 야음불천(也音不川)을 건너고 또 관음천(觀音遷)을 거쳐 보리진(菩提津)을 건너고 통구원(通溝院)을 지나 길가 민가에서 말에 꼴을 먹였는데, 주인 성명은 전기천(全起天)으로 우리에게 별꼴과 과일을 대접하고 서울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드디어 단발령을 오르는데 산 이름은 갈리치(葛離峙)이고 셋길에 험준하여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여 고개 위에 올랐더니 회정(檜亭)이 있었다. 섬돌에 앉아 쉬면서 풍악산을 바라보았더니 풍악의 여러 모습이 모두 눈앞에 낱낱이 펼쳐졌다.⁴⁾

4) 윤휴(尹鑄), 『풍악록(楓嶽錄)』, 『백호집(白湖集)』 “飯已，指鐵原邑里而行，至龍潭

용담고개는 연천에서 철원으로 향하는 길에 있다. 직전에 용담역이 있었다. 철원에선 북관정에 올랐다. 북관정에서 본 경관의 묘사가 자세하다. 김화를 지나다 평안도 순찰사 홍명구 충렬비를 보고, 직목역리에서 꼴을 주고 중치를 지났다. 창도역에서 금강산을 향해 동쪽으로 갔다. 보리진을 건너고 통구원을 지나 드디어 단발령에 올랐다.

김홍도가 그린 그림들을 본떠 그린 화첩 『금강산도권』에 철원의 북관정이 실렸다. 김홍도가 금강산을 그린 후 서울로 향하다 북관정을 그렸으니, 그는 연천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던 것 같다. 정철(鄭澈, 1536~1593)의 「관동별곡」에 북관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철도 철원을 들렀다.

東東州碯 밤 계오 새와 北北寬관亭명의 올라오니,
삼삼각각山山 第第一峰봉이 ㅎ마연 뵈리로다.
弓궁王왕 大대關關 터희 鳥鳥鵲작이 지지괴니,
千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난다, 몰으는다.

철원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날이 새자마자 북관정에 오르니, 임금님이 계신 서울의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보이는 것 같다. 옛날 태봉국 궁예왕의 대궐터였던 곳에 까마귀와 까치가 지지괴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것 같다고 읊조린다. 정철의 「관동별곡」 중의 일부다.

정자연은 금강산 가는 길목이라 유람객들이 들리곤 하였다.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은 아우 이현조와 함께 1692년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이

坂一作坡上. 曠然山開, 東北望數百里, 問之行人一作山人 云平康地界. 日午投鐵原邑內, 主倅權公順昌, 送人問之, 夕來見, 設小酌. 松簞·積梨·黑菓·獮桃, 徧嘗山中之味. (중략) 二十八日, 辛丑. 晴. 朝主倅來見, 與之共登北寬亭. 平曠廣野, 曠望百里. 西出崑然, 名琴鶴山, 去而爲寶蓋山. 野中點點三四阜, 云是寶蓋山之來踪. 設小酌而散. 時涼風乍起, 秋色已見於高原峭壁之上. 亭臨大野, 東瞻弓裔遺墟, 西北望寶蓋嶺岩等山. 令人有登高作賦之意, 得句未就. (중략) 遂發向金化. 憩于川邊, 過金化縣居, 至前途, 望酒松成林. 前有一碑閣, 閣云是洪監司殉所. 下馬讀之, 書平安道巡察使洪命壽忠烈碑.(중략) 二十九日, 壬寅. 晴. 驛史輩, 以酒果來饋. 朝發, 秣馬直木驛里. 代舅氏作書淮陽守, 寓驛卒致之. 過中峙, 有金化·金城分界之堠. 自此以西, 地勢逶迤而東高, 自此以東, 則地勢漸下, 水皆東趨. 踰峙行十餘里, 至一大川, 有數人聚會交易. 云是金城場市, 川名南大川.(중략) 朝發, 秣馬昌道驛, (중략) 朝發渡也音不川, 又歷觀音遷, 渡菩提津. 過通溝院, 秣馬于路傍, 民家饋以蜂蜜山果, 主人名全起天, 約相與訪于京中. 遂登斷髮嶺, 山名葛离峙, 嶺路危險, 或步或乘, 至嶺上, 有檜亭. 石砌坐憩, 望見楓岳面目, 歷歷皆在眼前”

때 정자연에 들렀다가 황근중의 증손이 기문을 청하자 「협선정기(挾仙亭記)」를 지어준다. 황근중이 지은 창랑정이 중건되면서 이름이 바뀐 것이다. 문인들의 입과 글을 통해 묘사되고 알려지게 된 정자연은 정선(鄭敼, 1676~1759)의 그림을 통해 명성을 떨치게 된다. 1747년에 그린 『해악전신첩』에 정자연이 포함되어었는데, 화적연과 삼부연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갈말읍을 거쳐 정자연에 들린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도권』에도 정자연이 있는데 김홍도는 정자연을 그리고 철원읍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1791년에 이동항(李東沆)의 「해산록(海山錄)」에 나타난 여정 중 정자연을 구경하고 생창역에 들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연천을 거쳐 철원 북관정에 오르고 김화로 향하는 노선보다, 포천에서 갈말읍을 거쳐 김화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홍인우(洪仁祐, 1515~1554)의 「관동록(關東錄)」은 1553년에 금강산 등 관동지방을 유람하고 쓴 일기체 기행문이다. 땅거미가 질 어스름 녘에 풍전역(豐田驛)에 이르렀다. 저녁에 가로현(可盧峴)을 넘었고, 김화에서 잤다. 창도역에 도착하여 식사하였다. 동쪽으로 가다가 관음천을 지나 10여 리를 가서 통구현에 이르렀다. 십여 리를 가니 단발령이었다. 갈말읍 군탄리 일대에 풍전역이 있었고, 가로현은 문혜리와 지경리 사이의 고개다.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유금강소기(遊金剛小記)」를 살펴보자. 삼부연에 들렀다가 김화 수령과 약속이 있어 현을 찾았다. 금성의 포상각(苞桑閣), 통구(通溝)를 지나 단발령을 넘었다. 풍전역을 지나 김화를 거쳐 금강산으로 향하던 사람들은 풍전역 인근에 있는 삼부연폭포를 자연스럽게 찾았다. 정선도 삼부연에 들러 그림을 남겼다. 강희영(姜羲永, 1796~1867)은 1841년의 유람을 「금강일기(金剛日記)」에 실었다. 갈말읍에 있는 서지동(徐池洞)과 지습점(池濕店)⁵⁾, 삼부폭포(三釜瀑布), 용화동(龍華洞)을 두루 거쳤다. 김화 고을의 주막을 지나 구정(九丁) 주막, 진목(眞目)을 통과하여 금성현(金城縣)에서 숙박하였다. 출발하여 창도(昌道) 주막에 이르고, 통구(通口)를 지나 단발령을 넘었다.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풍악록(楓嶽錄)」을 보면 1651년의 금강산 여행길이 보인다. 양문(梁門)을 지나 풍전역(豐田驛)에서 잤다. 금성(金城)에서 자고 금성에서 떠나 창도역(昌道驛)에서 쉬었다. 저녁에는 통구(通

5) 지습점(池濕店): 1778년(정조 2) 당시 신철원은 지습포리(池濕浦里)였다

構)에서 잤다. 통구에서 출발하여 오목천(梧木川) 위 30리쯤에 도착했다. 오목(梧木)으로부터 시내를 건너 골짜기를 뚫고, 꾸불꾸불 층진 산봉우리에 오르니 바로 단발령이었다. 어유봉(魚有鳳, 1672~1744)의 「재유금강내외산기(再遊金剛內外山記)」를 보자. 철원 땅 지습포(池濕浦)에서 자고, 아침에 출발하여 갈현(葛峴)을 넘고 김화읍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금성읍에 도착하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일찍 출발하여 창도역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었다. 3리쯤 가서 단발령으로 향했다.

안경점(安景漸, 1722~1789)의 「유금강록(遊金剛錄)」은 지명이 자세하다. 신철원에서 김화까지 가는 길도 자세하고, 김화와 금성의 도로도 꼼꼼하게 적었다.

만세교(萬歲橋)에서 아침을 먹고 마을 앞의 작은 시내를 건너니 바로 영평(永平) 땅이다. 양문(楊門), 백당동(栢堂洞), 유정(楡亭), 굴곡천(屈曲川)을 지나 인포(茵浦)에 이르러 잤다. 이날 90리를 갔다. 23일 맑음. 일찍 출발하여 마을 앞의 작은 시내를 건너니 곧 철원(鐵原) 땅이다. 갈현(葛峴)에서 아침을 먹고 15리를 멀리 가서 신주점(新酒店)을 지나니 바로 김화 땅이다. 유정(楸亭), 세갈현(世葛峴)을 지나 김화 읍내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초동(初洞)의 발산(勃山)과 답현(答峴), 이동(二洞)의 구정판(九亭板)을 지나 다리 앞의 홍씨 집에서 잤다. 이날 70리를 갔다. 24일 맑음. 다시 구정판을 나와 아침을 먹고 진목역(眞木驛)을 지나니 금성(金城) 땅이다. 금성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경파(鏡波), 탄검(炭黔), 창도창(昌道倉)을 지나 상기성(上岐城) 이춘광(李春光)의 집에서 잤는데, 양중과는 본관이 같아 대접이 매우 후했다. 이날 70리를 갔다. 25일 맑음. 새벽에 출발하여 관음굴(觀音窟)의 조덕상(趙德常)의 집에서 아침을 먹고, 통구(通溝)에 이르러 정(正)의 전백령(全百齡)의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내가 십년 전 성군관에 있을 때의 친구였다. 당시 나이가 많고 집안이 가난했는데 나를 만나 기꺼이 술을 사 같이 먹었다. 마니치(磨尼峙) 추정(楸亭)의 풍헌(風憲) 김사달(金士達)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날은 단지 40리를 갔다. 여기서부터는 거리가 매우 멀어 경기도의 거리로 보면 다만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26일 맑음. 아침을 먹은 후, 가마를 타고 단발령(斷髮嶺)을 오르니 멀리 뜬 구름이 산을 두르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금강산이었다.⁶⁾

6) 안경점(安景漸), 「유금강록(遊金剛錄)」, 『냉와문집(冷窩文集)』 “二十三日晴, 早發, 渡村前小溪, 卽鐵原界也, 朝飯于葛峴, 十五里而遠, 過新酒店七里卽金化界也, 楸亭三里細葛峴, 十里抵金化邑內午點, 十五里過初洞勃山, 十里奮峴五里二洞九亭

이진택(李鎭宅, 1738~1805)의 「금강산유록(金剛山遊錄)」에 나타난 여정도 안경점과 대동소이하다. 일찍 출발하여 마을 앞의 작은 시내를 건너니 바로 철원의 경계이다. 아침은 갈현(葛峴)에서 먹었다. 신주점(新酒店)을 지나니 바로 김화의 경계이다. 유점(楡店)을 지나서 세갈현(細葛峴)에 이르고 김화읍에 도달하였다. 동천산(同仟山)의 답현(畚峴)에서 점심을 먹고 이동(二同)의 구정판(九亭板)에 이르렀다. 중추현(中樞峴)을 넘고 진본역(眞本驛)에 도달하였으니, 금성(金城)의 경계이다. 금성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경파현(鏡波峴)을 넘었다. 탄검(炭黔)을 거쳐 창도창(昌道倉)을 지나 상기성(上岐城)에 이르렀다. 관음굴(觀音窟)을 지나 다경진(多慶津)을 건너 통구창(通溝倉)을 지났다. 아침을 먹고 단발령에 올랐다.

철원 부분이 생략된 글도 있다. 성제원(成悌元, 1506~1559)은 「유금강록(遊金剛碌)」을 1531년에 남겼다. 장인어른을 따라 김화현에 갔다가 금성현(金城縣)에서 묵고, 도파원(兜坡院)에 도착하였다. 단발령에 도착하니 구불구불한 돌길이 왕복 10여 리는 되는 듯하였다. 노경임(盧景任, 1569~1620)은 1595년에 강원도 순안어사(巡按御史)가 되었는데 귀로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금성에서 출발하여 창도역을 거쳐 단발령으로 향하였다.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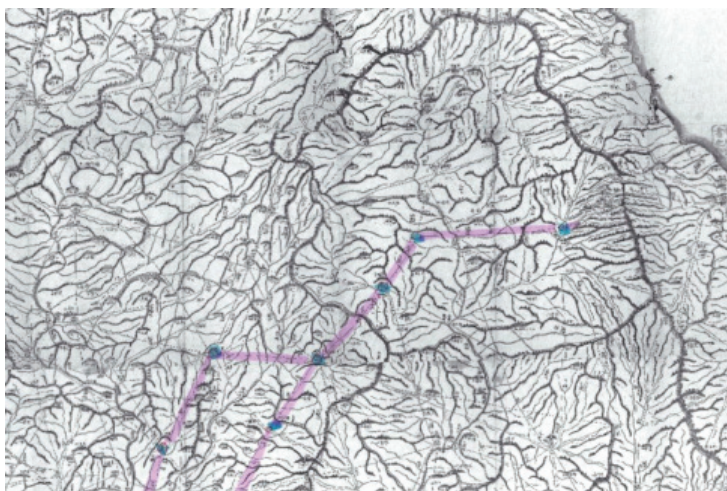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1671년에 창도역에서 북쪽에 있는 회양에 들렀다가 장안사로 들어간 여정을 「동유기(東遊記)」에 남겼다. 신철원 풍전역에 투숙하고, 점심은 창도역에서 먹었다. 저녁에 회양 땅 신안역에서 묵었다. 점심때 회양에 도착하였다. 회양에서 추촌(楸村)을 지나 묵회령과 철이령(鐵伊嶺)을 넘어 장안사로 들어갔다.

이형운(李炯胤, 1593~1645)은 1615년에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를 지었다. 풍전역 이계남의 집에서 자고, 김화현에 도착하여 현감을 만났다. 창도역과 신안역을 지나 화천현에서 유숙하였다. 추자령을 넘어 총석정을 구

板, 十里宿橋前洪家, 是日行七十里, 二十四日晴, 遷出九亭朝飯, 過眞木驛, 十五里金城界也, 至金城邑內午點, 十五里過鏡波十里炭黔十里昌道倉, 十里宿上岐城李春光家, 十里與養重同譜人, 待之甚厚, 是日行七十里, 二十五日晴, 曉發, 朝飯于觀音窟趙汗德常家, 十里至通溝, 十里入全旌義百齡家, 卽余十年前泮中舊要也, 時年老家食, 見余喜, 沽酒而飲之, 至磨尼峙楸亭金風憲士達家, 二十里是日只行四十里, 自此道里甚遠, 視京圻里, 數不翅加三之一, 二十六日晴, 仍朝飯, 肩輦上斷髮嶺, 遙望一抹浮雲橫繞山者, 是金剛也,”

경하고 남하하여 삼일포를 거친 후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박영석(朴永錫, 1734~1801)도 단발령을 넘지 않고 회양을 거쳐 통천으로 가서 총석정을 구경하고 외금강을 유람하였다. 「동유록일기(東遊錄日記)」를 지은 것은 1797년이었다. 그는 야미점(夜味店)에서 점심을 먹고 서자일점(西自逸店)⁷⁾에 도착하였는데 날이 아직도 일렀다. 보슬비를 만나 유숙하였다. 조반을 먹고 출발하였다. 장림점(長林店)에 도착하여 점심을 대신하고, 밤에 김화읍 아래의 여관에서 투숙하였다. 아침을 답현점(沓峴店)에서 먹고 금성(金城)의 남천(南川)에 도착하여 피금정(披襟亭)에 올라 잠시 쉬었다. 추곡점(楸谷店)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탄검리(炭黔里)에서 묵었다. 오목점(梧木店)에서 아침을 먹고 밤에 신안점(新安店)에서 투숙하였다. 광석점(廣石店)에서 아침을 먹고 부로지현(扶老只峴) 아래의 여관에서 아침을 먹고 추지령(秋池嶺)을 넘어 통천의 총석정을 구경하고 남하하여 신계사로 들어갔다.

〈그림 1〉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철원을 경유하여 금강산 가는 길



출처: 대동여지도

7) 서자일점(西自逸店): 강포리 서자곡.

2. 화천을 경유하는 노선

양대박(梁大樸, 1544~1592)은 1572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금강산기행록」을 남긴다. 춘천 청평사를 출발하여 낭천(화천)에 도착하였다. 새벽에 낭천현을 떠나 산양역(山陽驛)에서 아침을 먹었다. 산양역은 화천에 속한 역으로, 은계도(銀溪道)의 역 중 하나다.⁸⁾ 주파현(走坡峴)을 지나려고 할 때 동풍이 땅을 휩쓸며 불었다. 주파현은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화천과 금성을 잇는 주소령(注所嶺)이다. 금성 땅 서운역(瑞雲驛)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저녁에는 창도(昌道)에서 유숙하였다. 새벽에 말을 채찍질하여 풍천진(楓川津)을 건너 통구현(通溝縣)에서 잠시 쉬었다. 산이 끝나고 힘도 모두 소진하여 도착한 곳은 단발령이었다.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은 1714년에 화천 사창리에서 학령(鶴嶺)을 넘어 김화의 잠곡촌(蚕谷村)에 이르렀다. 학령은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하현(遐峴)이다. 잠곡촌은 고개 아랫마을 잠곡리다. 김화에서 자고 직목역(直木驛), 창도역(昌道驛)을 지날 때까지는 내금강을 유람하는 동일한 노선이다. 이하곤은 말을 북쪽으로 몰았다. 맥판(麥阪), 신안역(新安驛)까지는 회양으로 가는 길이고, 노곡령(蘆谷嶺), 말흘령(馬齧嶺), 점방령(占方嶺)은 회양 가기 전 동쪽 노선이다. 묵희령(墨喜嶺)⁹⁾, 철이령(鐵伊嶺)을 지나 장안동(長安洞)으로 들어가는데 이 길은 회양 화천에서 내금강을 가는 남쪽 길이다. 이하곤의 복잡한 금강산 가는 길은 「동유록(東遊錄)」에 실렸다.

1765년에 안석경(安錫倣, 1718~1774)은 「동유기(東遊記)」를 짓는다.

8월 24일(정묘). 일찍 낭천을 출발했다. 오른쪽으로 시내를 끼고 왼쪽으로 산 아래 길을 택하여, 마치(馬峙)를 넘어 40리를 갔다. 산양역(山陽驛)에서 점심을 먹었다. 역에서부터 북쪽으로 난 길을 택하여, 왼쪽으로 시내를 끼고 오른쪽으로 산길을 따라갔다. 산과 시내의 단풍은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다. 마치(馬

8) 은계도의 관할범위는 회양·금성·낭천 방면과 회양·평강·철원 방면 및 회양·양구·인제·동해안 방면으로 이어지는 역로이다. 은계도에 속하는 역은 철원의 풍전(豐田)·용담(龍潭), 김화의 생창(生昌), 금성의 직목(直木)·창도(昌道)·서운(瑞雲), 회양의 신안(新安), 평강의 입단(林丹)·옥동(玉洞), 이천의 건천(乾川), 낭천의 산양(山陽)·원천(原川)·방천(方川), 양구의 함춘(含春)·수인(水仁), 인제의 마노(馬奴)·부림(富林)·남교(嵐校)·임전(林川) 등 19개 역이다.

9) 묵희령(墨喜嶺): 대동여지도에는 말휘령으로 표시되었다.

峙)¹⁰⁾를 넘어 원동촌(院洞村)으로 내려갔다. 마을 입구에 있는 산의 바위가 기이하고 빼어나 마음에 들었다. 40리를 걸어 금화(金化)의 백전(栢田)에서 유숙하였다. 이곳은 바로 이 고을의 작은 언덕으로 위는 평평하고 높는데, 정축년에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관서 절도사인 유림(柳琳)이 진을 쳤던 곳이다. 그 오른쪽 언덕 아래의 얇은 골짜기는 바로 대장 홍명구(洪命耆)가 적과 싸우던 장소이다. 홍공의 서원은 마현교(馬縣橋) 왼쪽에 있는데, 유림의 승전비도 있다. (중략)

8월 26일(기사). 일찍 출발하여 기성치(岐城峙)를 넘었다. 열녀 장씨(張氏)의 정려문을 보았다. 장씨는 학생(學生) 장응두(張應斗)의 딸이다. 처녀로 어머니를 따라 노기성(路岐城)에서 정축년 오랑캐의 난리를 피하였는데, 오랑캐가 노략질하는 것을 보고 굶주린 개라고 거세게 꾸짖었다. 마침내 더럽힘은 당하지 않았지만 난도질 당하여 죽었다. 그 뒤에 도백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다가 정려문을 세웠다. 묘지는 정려문에서 몇 리 떨어진 근방에 있다고 한다. 30리를 가서 창도역에서 점심을 먹었다. 비를 맞으면서 저녁에 관사를 지나 벼랑길로 접어들었는데, 오래된 돌과 단풍이 강에 비치어 아름답다. 맥판강(麥板江) 하류에서 나루를 건너 통구역으로 들어갔다. 절벽은 푸르고 강은 맑으며 가을맞은 나뭇잎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구름 낀 봉우리와 안개에 쌓인 나무들이 숨었다 드러났다 한다. (중략)

8월 27일(경오). 일찍 출발하였다. 단발령에 이르기 15리 전에 길옆에 시냇물이 있는데, 수석이 마음에 들었다. 단풍은 매우 붉었다. 서남쪽에는 한 봉우리가 시내를 마주 보고 외롭게 솟아 있었다. 잠시 쉬었다가 못의 바위에 다가가 보니, 못에 비친 단풍이 외로운 봉우리와 마주하고 있었다. 모두 시를 지었다. 그 둘을 삼노(三老)라고 하고 그 봉우리를 시봉(詩峰)이라 하였다. 앞으로 가서 단발령에 올랐다.¹¹⁾

10) 마치(馬峙): 철원군의 중동부 근남면 마현리와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화현에 "마현(馬峴)은 현 동쪽 29리에 있다. "는 기록이 있어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지도서』 김화현에 "마현은 현 동쪽 30리에 있는데 낭천(狼川) 경계에서 산줄기가 불정산(佛頂山)에 이어진다."고 되어 있다. 김화지도 중 『해동지도』와 『광여도』에는 현의 남동쪽에, 『1872년지방지도』에는 현의 동쪽에 마현이 묘사되어 있다.

11) 안석경(安錫敬) 「동유기(東遊記)」, 『삼교집(雪橋集)』 "丁卯. 早發狼川. 右挾溪水. 左取山下路. 踰馬峙. 行四十里. 午食山陽驛. 驛以北之路. 左挾溪. 右綠山. 山溪之楓. 爛紅可愛. 踰馬峙. 下院洞村. 村口山巖. 奇秀可愛. 凡行四十里. 宿金化栢田. 卽縣小崗. 上平而高. 乃丁丑胡寇時. 關西節度. 柳琳. 陣地也. 其右別崗下淺谷. 乃大將洪公命耆. 陣數之處也. 洪公之祠. 在烏縣橋之左. 柳琳勝戰碑在烏. (중략) 己巳. 早發. 踰岐城峙. 見烈女張氏旋門. 張氏學生應斗之女也. 以處子從母.

안석경 행로의 특이점은 낭천과 김화 사이의 구간이다. 산양역에서 점심을 먹고 북쪽에 있는 마치(馬峙)를 넘었는데 지금의 말고개다. 말고개를 넘고 40리를 걸어 금화의 백전(栢田)에서 유숙하였다. 백전은 정선이 「화강백전(花江栢戰)」을 그린 생장리다. 김화부터 단발령에 이르는 구간은 다른 유람객들과 같다.

강주우(姜周祐, 1757~1817)의 「유금강산록」에 나타난 행로는 산양역, 단운역(端雲驛), 금성(金城) 정파(正坡), 창도역, 기성(岐城), 관음굴(觀音窟), 통구역, 단발령이다. 단운역(端雲驛)은 서운역의 오기인 것 같다. 강헌규(姜獻奎, 1797~1860)도 강주우와 비슷하다. 「유금강산록」을 보면 비를 무릅쓰고 마현(馬峴)을 넘어 낭천으로 들어갔다.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주파령(奏琶嶺)¹²⁾을 넘었다. 서운역(瑞雲驛)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창도역에서 유숙하였다. 심포(深浦)를 건너니 이곳부터 회양 땅이다. 아슬령(牙瑟嶺)을 넘었는데, 험하기가 주슬령의 배는 되었다. 또 고개를 넘어서 회양에 도달했다. 부노령(扶老嶺)을 넘어 화천(華川)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풍미(豐美)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마파령(麻坡嶺)을 넘어 장북촌(長北村)에서 말을 먹이고 시내를 따라 몇십 리를 올라가서 사문교(沙門橋)를 지나 장안사에 들어갔다. 금성에서 회양까지 올라간 후 화천을 거쳐 장안사로 들어갔다.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1868년에 지은 「동유기」에 금강산 유람이 들어있다. 미륵현(彌勒峴)¹³⁾을 넘고 산양역을 지났다. 패령(佩嶺)을 넘으니 금성의 경계이다. 길을 나서 상산(商山)에 도착하였다. 또 길을 나서 창도역(昌道驛)에 도착하였다. 점심을 먹고 울망현(鬱望峴)을 넘어 관음굴(觀音窟)에서 투숙하였다. 통구진(通溝津)을 지나 마니(摩尼)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다. 주막은 단발령의 아래에 있었다.

화천에서 금강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사창리서 하우고개를 넘어 잠곡리를 거쳐 김화에 도달하여 금강산 가는 경우가 있다. 화천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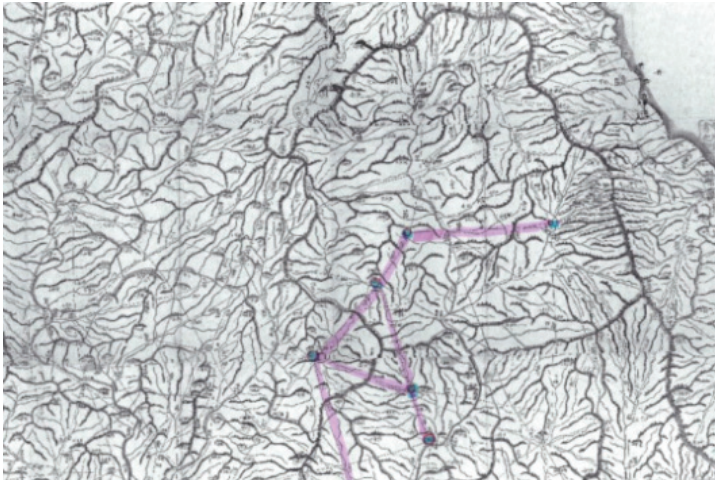
避丁丑虜寇路岐城。見虜掠怒罵狗。終不見汚辱。而受亂刀以死。其後道伯聞。卽其地旋門。其墓在其傍。數里之近云。行三十里。午食昌道驛。過雨暮。過官轉驛。古石丹楓。映江可愛。橋渡麥板江下流。入通溝驛。翠壁清江。秋葉爛然。四顧雲峰煙樹掩映。(중략) 庚午早發未抵斷髮嶺十五里路傍溪水水石可愛楓樹爛紅西南一峰隔溪孤聳少憩臨潭之石映楓對孤峰皆賦詩名其石曰三老名其峰曰詩筆前登斷髮嶺”

12) 주파령(奏琶嶺): 대동여지도에는 주소령(注所嶺)이라 표기했다.

13) 미륵현(彌勒峴): 노동리와 파포리 사이에 있는 파포고개의 옛 명칭이다.

산양리를 거치는 경우 마현을 넘어 김화로 가는 경우와 금성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림 2〉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화천에서 금강산 가는 길



출처: 대동여지도

3. 양구를 경유하는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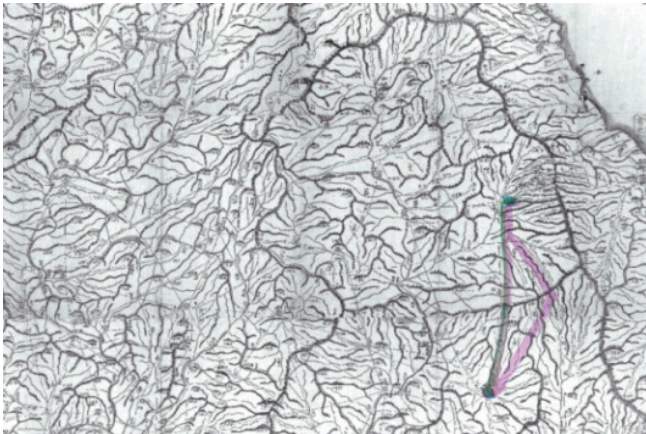
두타연을 지나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은 내금강까지 가는 최단 경로로 알려졌다. 과거 이 길을 통하여 양구주민들은 내금강 장안사로 소풍을 떠났다. 아침에 양구를 출발하여 장안사에서 점심을 먹고 양구로 다시 돌아오면 하루가 저무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행이 가능하였던 것은 양구 일대가 남북방향의 산줄기가 우세하여 비교적 큰 고개 없이 금강산까지 왕래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금강산으로 갈 때 먼저 두타연을 구경했는데, 옆에 두타사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두타사가 두타산에 있다고 알려준다. 이만부(李萬敷, 1664~1732)는 『식산집(息山集)』의 「지행록(地行錄)」에서 두타사의 행방을 증언한다.

양록(楊麓; 양구)에서 북쪽으로 40리 떨어진 방산점(方山店)에 두타산(頭陀山)이 있다. 산의 기세는 더욱 깊어지는데 계곡으로 10여 리 들어가면 예전에 두타사(頭陀寺)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사가 되었다. 좌우로 두 개의 폭포가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곧바로 떨어져서 아래에 깊은 못을 만드는데 용연(龍淵)이라 한다. 못 주변에 너럭바위가 많아 100여 명이 앉을 수 있고, 위에 거인의 발자국이 있다.¹⁴⁾

이만부가 기록할 당시에 두타사는 이미 폐사되었다. 주변에 있는 폭포와 용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여 참고할 만하다. 『관동지』는 두타연이 양구현의 사태동(沙汰洞)에서 나와 낭천(狼川) 모일강(暮日江)으로 들어가며, 관문에서 50리라고 덧붙인다. 허적(許積, 1563~1640)은 양구에서 출발해 두타사를 거쳐 금강산으로 향했는데, 두타사에서 「두타사 석문에 쓰다[題頭陀寺石門]」를 짓는다.¹⁵⁾

〈그림 3〉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양구에서 금강산 가는 길



출처: 대동여지도

- 14)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 “楊麓北去四十里。方山店有頭陀山。山氣益深。入谷十餘里。古有頭陀寺。今廢。左右兩瀑。從懸壁上直下。下成深潭。曰龍淵。淵上多盤石。可坐百餘人。上有巨人跡”
- 15) 허적(許積), 「두타사 석문에 쓰다[題頭陀寺石門]」, 『수색집』 “鑿龍餘力及青丘, 劈斷層巖放急流, 屹立兩崖元氣裂, 奔騰一壑百靈搜, 清秋人上神魂慄, 白日龍藏洞穴幽, 夙想瑰奇今始愜, 翰林詩句子長遊”

안석경(安錫敬, 1718~1774)은 두타연을 거쳐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고 「동행기(東行記)」를 남긴다. 자세한 기록이 궁금하다.

양구의 원화촌(遠花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원화촌은 평평하고 넓어 좋아할 만하였으며, 동남쪽을 등지고 있었다. 이날 60리를 갔다.

병자. 가랑비를 무릅쓰고 지석(支石)을 지나 덕곡(德谷)에서 쉬었다. 하현(夏峴)을 넘어 시내를 따라 내려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바위 사이에 꽃이 많이 피어 있었다. 시내가 끝나는 곳에서 큰 시내를 만났는데, 이 시내를 건너 방산촌(方山村)에 이르렀다. 동남쪽을 돌아보니 빼어난 바위 벼랑의 붉고 푸른빛이 시내에 비쳤다. 거슬러 올라가니 양쪽 벼랑이 모두 꽃과 바위였다. 다시 시내를 건너 북쪽으로 갔다. 서쪽의 벼랑을 둘러보니 기이한 봉우리가 늘어서 있고, 거슬러 올라 동쪽으로 가니 수석은 더욱 아름답고 꽃 빛은 한층 더 짙었다. 바위 벼랑을 따라 북쪽으로 가서 공곡(貢谷)으로 들어가 안귀선(安貴善)의 집에서 묵었다. 이날 50리를 갔다.

정축. 서쪽으로 시내를 건너 북쪽으로 골짜기에 들어갔다. 시내를 따라 걷는 길이 많았는데 시내에는 양쪽으로 바위가 많고, 바위 사이에는 꽃이 많이 피어 10리 넘게 이어져 있었다. 공곡을 벗어나 몇 리 올라가 문등(文登)에 몇 리 못 미친 곳에 수석이 더욱 아름답지만 두타담(頭陀潭)과 폭포의 장관만은 못하였다. 두타담은 길 오른쪽 2리 정도 되는 조금 깊고 외진 곳에 있다. 물이 동북쪽의 골짜기에서 세차게 흘러내려 산의 입구에 다다라서는 층층의 바위에 묶여서 소리치고 성내며 흔들고 물어뜯어 힘을 다해 싸우는 듯하였다. 부채 같은 바위가 수십 길로 양쪽에 서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를 쥌 수 없었다. 세찬 여울이 뿔어져 아래로 모여 큰 못이 되었다. 사방이 10무 정도 되는데 물안개가 자욱하여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남쪽 벽에 굴이 있고, 북쪽 벽 위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다. 사방으로 돌아보니 봉우리가 우뚝하고 기이하며, 나무와 바위가 매우 특이하였다. 어두운 붉은 빛과 푸른빛이 처량하게 옛일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두타사(頭陀寺) 옛터는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다. 풍악산에 가는 길이라 이곳에 오래 머물려 하지 않았으나 내내 그리워지는 여운이 있었다. 나는 구룡폭포(九龍瀑布)나 만폭동(萬瀑洞)이 여기보다 열 배는 좋다고 들었다. 이곳은 풍악산의 지맥인데도 도리어 이와 같으니, 아마도 왕의 휘하에서 부리는 사람은 모두 장군이나 정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로소 두타담으로 들어가 문등의 물줄기를 건너 또 다른 시내를 따라갔다. 그곳을 벗어나 다음 다시 문등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문등촌(文登村)에서 잠시 쉬었다. 이치(梨峙)를 넘어 송거리(松巨里)에 이르러 묵었다. 이날 55리를 갔다.

무인. 마성령(馬成嶺)을 넘으니 비로소 금강산의 비로봉(昆盧峯)·중향성(衆香城)의 일부분이 보였다. 웅장하고 빼어난 기운이 천하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듯하여 사람의 모골을 송연하게 했다. 두치(杜峙)에서 잠시 쉬고, 서상곡치(西廂谷峙)에 올라 구정봉(九井峯)·망고봉(望高峯)·혈망봉(穴望峯)·내수재(內水站)·외수재(外水站)의 일부분을 보았다. 피곤한데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웠다. 파금치(把金峙)를 지나 아래로 굽어보니 장안사(長安寺)가 소나무와 회나무 사이로 살짝 드러났다. 시내를 건너 장안사로 들어가서 만천교(萬川橋)를 건너 산영루(山映樓)에 올랐다.¹⁶⁾

양구에서 장안사 주변까지의 일정은 “7일: 양구-덕곡-방산촌-공곡 안귀선의 집, 8일: 공곡-두타담-이치-송거리, 9일: 송거리-마성령-두치-서상곡치-장안사”이다.

4. 인제를 경유하는 노선

양구에서 출발한 유람객은 두타연을 거쳐 장안사로 가곤 했지만, 다른 길도 있었다. 이근원(李根元, 1840~1918)의 여행길에 『동유일기(東遊日記)』에 자세히 다. 양구군 동면 임당리에서 돌산령을 넘어 해안으로 향한다. 해안에서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로 이동한 후, 응봉령(鷹峰嶺)을 넘어 속사촌(束沙村)에 들린 후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16) 안석경(安錫敬), 『동행기(東行記)』, 『삽교집(雪橋集)』 “至楊口遠花村, 留宿. 遠花平衍可愛, 而背東南. 是日行六十里. 丙子. 冒微雨, 過支石, 憩德谷. 踰夏峴, 沿溪而下, 谿流石間多花. 谿盡遇大川, 亂流而到方山村. 回顧東南, 石崖秀發, 紅綠映川. 溯上, 兩崖皆花石. 又亂流而北. 回顧西崖, 奇峯羅立, 溯而東, 水石尤佳, 花尤濃. 緣石崖而北, 入貢谷, 宿安貴善家. 是日, 行五十里. 丁丑. 西涉溪而北入谷. 路多緣溪, 溪多夾石, 石多花葉, 將十里而未已. 離貢谷而上數里, 未及文登數里所者. 石貌水態尤佳, 而莫如頭陀潭瀑之壯. 頭陀在路右二里, 稍深僻. 水自東北峽, 激揚而下, 及薄山門. 束於層岩, 吼怒盪盪, 極力相鬪, 而石扇雙立數十仞, 其間不能尺. 勁湍噴下漚, 作巨潭. 方可十畝, 靄靄不可測. 南壁有窟, 北壁戴古松. 四顧峯嶂峻奇, 木石殊異, 紅幽綠晦, 使人悄然而憂古云. 有頭陀寺遺址, 猶可認. 方趨楓岳, 不欲久於此, 然猶眷眷, 有餘意. 余以所聞九龍·萬瀑, 當十陪於斯. 斯爲楓岳之餘, 而顧如是, 豈所謂王門廝役, 皆作將相者耶. 始入頭陀, 涉文登之流, 而別取溪. 既出復溯文登之流, 小憩文登村. 踰梨峙, 至宿松巨里. 是日, 行五十里. 戊寅. 踰馬成嶺, 始見金剛山昆盧·衆香之偏. 雄秀之氣, 欲傾天下, 已令人竦然. 小憩杜峙, 登西廂谷峙, 見九井·望高·穴望·內外水站之偏. 疲困之餘, 不覺步履之輕舉. 過把金峙, 俯見長安寺, 隱映松檜間. 涉溪入寺, 踏萬川橋. 登山映樓”

29일 경술일. 맑음. 길을 나서 덕곡(德谷)에 이르러 오른쪽으로 해안(奚安) 길을 가다 임당점(林塘店)을 지나 잠시 쉬고, 팔랑동(八郎洞)에 들어가 김씨 성을 지닌 사람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도중에 감홍이 일어 시 한 수를 지었다. 이날 30여 리를 갔다.

9월 1일 신해일. 맑음. 일찍 출발하여 주막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었다. 돌산령(突山嶺)을 넘었는데, 고갯길 위아래 30리가 매우 험준하게 이어져 있었다. 산 중턱 부근에 도달하니 갑자기 길이 평탄하였다. 그곳에서 산을 바라보니 웅장하고 골짜기는 깊숙하며 구불구불하고, 한없이 넓어 위연한 모습이 대인의 기상이 있었다. 박달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뺨뺨하게 서 있고, 그 사이에 단풍나무가 간혹 있는 모습이 또한 마치 찬란한 문장과 같았으니, 바로 이번 여행에서 첫 번째로 가슴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다 같이 천천히 걸으며 시 한 수를 지었다. 곧바로 해안(奚安)으로 내려오니, 산이 깊어 서리가 일찍 내렸다. 나무는 낙엽이 지고 바람은 서늘하였다. 만대동(萬岱洞)에 이르러 휘경(輝敬) 이교현(李敎玼)을 방문하였다. 해안은 산이 빙 둘러 있으면서도 들판이 넓어 본래부터 은거할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 무인년(1878년, 고종 15년) 여름에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선생이 몇 개월을 이곳에 머물렀는데, 고을의 선비들이 펼쳐 일어난 자가 많았다. 오늘 와서 여러 벼를 두루 방문하려 하였는데 모두 떠나 버리고 오직 휘경만이 남아 있었다. 그 이웃 공수(公壽) 이만중(李萬鍾)을 만나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내 함께 돌아와 머물러 묵었다. 시 한 수를 지어 주었다. 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

2일 임자일. 맑음. 휘경과 함께 10리를 갔다. 후동(後洞)에 이르러 만곡(晩谷, 호) 성유(聖有, 자) 홍중훈(洪鍾訓)의 집을 방문하였다. 행장을 차려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니 홍중훈이 흔쾌히 허락하였다. 충여(忠汝) 정하진(鄭夏鎭)에게 편지를 보내 정양사(正陽寺)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점심을 먹고 드디어 만곡과 더불어 길을 나서 이현(泥峴)을 넘어 15리를 갔다. 서희(西希)에 이르러 박봉래(朴鳳來)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3일 계축일. 맑음. 길을 나서 응봉령(鷹峰嶺)에 도달하였다. 매우 기이한 폭포가 있는데 백양(白揚)이라 이름 지었다. 여러 벼와 시 한 수를 지었다. 고개를 넘어 서쪽으로 내려와 오른쪽으로 가반치(加半峙)를 넘어 청송(靑松)의 주막거리에 도달하였다. 서희(西希)까지 거리가 30리이다. 북쪽을 향하여 조금 가다가 백진사(白進士)의 집에 들어가 감자를 대접받고 다시 10리를 갔다. 직동령(直洞嶺)을 올라 금강산을 바라보았다. 여러 벼와 화서 선생의 단발령(斷髮嶺)의 운을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 또 10리를 가 속사촌(束沙村)의 주막에 유숙하였다.

4일 갑인일. 맑음. 길을 나서 10리를 갔다. 삼거리에 이르러 서쪽으로 10리를 가서 후현(後峴)을 지나 유(劉)씨 성을 지닌 사람의 집에서 잠시 쉬었다. 박경

조(朴敬朝) 일행이 이미 정양사를 향해 출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비원(高碑院)에 도달하니 바로 단발령으로 가는 길이 합쳐진 곳이다. 동쪽으로 돌아 곧바로 장안사(長安寺)의 골짜기로 들어갔다. 탐거리 아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천천히 걸어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 골짜기가 막힌 듯 하였으며, 바위 산이 눈처럼 희었다. 단풍나무가 절벽에 가득하였고 전나무와 잣나무가 길옆에 늘어서 있어, 사람들의 정신과 기운을 맑고 상쾌하게 하였다. 부도탑(浮屠塔)을 지나 만천교(萬川橋)를 건너 장안사로 들어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여러 승려들이 나와서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였다. 마침내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후현(後峴)과의 거리가 40리이다. 화서 선생의 오언 율시와 칠언 절구를 차운하여 각각 한 수씩 지었다.¹⁷⁾

양구에서 금강산을 가는 길은 두타연을 거쳐 문등리를 통과한 후 내금강 장안사로 가는 길이 일반적인 길이었다. 또 다른 길이 있었다. 양구군 동면 임당리에서 돌산령을 넘어 해안을 거친 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로 이동, 응봉령을 넘어 장안사에 도달하는 길이었다. 인제읍을 거쳐 금강산으로 간 경우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17) 이근원(李根元), 「동유일기(東遊日記)」, 『금계집(錦溪集)』 “二十九日庚戌晴. 發行至德谷. 右從亥安路. 過林塘店少憩. 至八郎洞. 投宿金姓人家. 路中有感賦一絕. 是日行三十里強. 九月朔日辛亥晴. 早發到店朝飯. 踰突山嶺. 嶺路上下三十里逶迤峻極. 却甚坦夷. 登脊臨之. 山雄壑邃. 扶輿磅礴. 偉然有大人氣像. 檀櫟簇立. 間以楓樹. 又如文章之炳煥. 乃是此行之初蕩胸處也. 相與緩步. 吟成一絕. 直下亥安. 山深霜早. 木凋風冷. 至萬垞洞. 訪李輝敬教玆. 亥安. 山環野開. 素稱可隱之地. 而昔在戊寅夏. 省齋先生. 數月淹留于此. 鄉士多有興起者. 今日之來. 盖欲遍訪諸友. 而適皆移去. 惟輝敬在焉. 遇於其隣. 李公壽萬鍾少話. 遂與同歸止宿. 贈一絕詩. 夜小雨. 二日壬子晴. 與輝敬共行十里. 至後洞. 訪晚谷洪聲有鍾訓家. 諭以聯袂之意. 洪友欣然許之. 書邀鄭忠汝夏鎮. 來會于正陽寺. 中火. 遂與晚谷發行. 踰泥峴十五里. 至西希. 止宿朴氏鳳來家. 三日癸丑晴. 發行至鷹峰嶺. 有一瀑頗奇. 遂命名以白楊. 與諸友共賦一絕. 踰嶺西下. 右踰加半峙. 至青松酒廳街. 距西希. 爲三十里. 向北小行. 入白進士家. 饋以甘藷. 遂行十里. 上直洞嶺. 望金剛. 與諸友次華西先生斷髮嶺. 又行十里. 至東沙村店止宿. 四日甲寅晴. 發行十里. 至三街. 西行十里. 過後峴. 劉姓人家少憩. 聞朴君敬朝一行已向正陽寺矣. 遂行至高碑院. 卽斷髮嶺路會合處也. 東折而卽入長安寺洞口也. 至塔街下店飲酒. 緩步泝溪. 洞府交鎖. 巖嶽如雪. 楓樹滿崖. 檜栢夾道. 令人神怡而氣爽也. 過浮屠塔. 渡萬川橋. 入長安寺. 日已暮矣. 諸僧迎而禮之. 遂止宿. 距後峴. 爲四十里. 次華西先生韻五律七絕. 各一首.”

5. 고성을 경유하는 노선

이곡(李穀, 1298~1351)은 금강산을 유람하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다. 해금강 삼일포를 구경하고 배를 타고 안창현정을 지나 명파에서 잤다. 선유담에 들렀다가 청간역을 거쳐 만경대를 구경했다. 영랑호에 배를 띄우고 어두워질 무렵 낙산사에 도착하였다. 금강산을 유람한 후의 행로지만 반대로 이 길을 통해 조선의 유람객은 금강산으로 갔다. 관동팔경이 소재한 이 노선은 조선 최고의 유람코스였다.

간성을 지나 도착한 고성에서 먼저 해금강으로 갔다. 외금강으로도 갔으며 북쪽으로 이동하며 관동팔경인 총석정과 시중대까지 구경하기도 했다. 고성에는 서쪽에 금강산이 있고, 동쪽에는 해금강이 있는 고을이다. 조선 시대에는 고성과 간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고성군으로 합쳐졌다. 광복되면서 북한의 관할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간성·거진·현내면 전역과 수동면·고성을 남부를 수복하여 고성군이라 하였다. 북한은 원래의 고성군 북부와 통천군 남부를 합쳐서 고성군을 만들었다.

유운룡(柳雲龍, 1539~1601)은 1557년에 금강산으로 향했다. 「유금강산록」에 의하면 거탄진(巨呑津)을 지나 열산현(列山縣)에서 점심을 먹었다. 대구(大仇)의 미어점(未漁店)에 투숙하였고, 바다를 따라 무송정(茂松亭) 아래에 이르렀다. 명파역(明波驛)을 지나 대강역(大康驛)에서 식사를 하고, 수고사(稂庫寺)에 투숙하였다. 간단하게 행장을 꾸리고 늦은 시각에 반암(盤巖)에 도착하여 말을 먹이고 장령(丈嶺)을 넘어 현교(懸橋)에 도착하니 잔로(棧路)가 위험하여 말을 탈 수가 없었다. 유점사(楡店寺)의 동구에 이르니 전나무와 잣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이동표(李東標, 1644~1700)의 「유금강산록」은 호수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이다.

현산(峴山)에서 출발하여 강선역(降仙驛)을 들렀다가 청간정에 들어가고 만경대에도 올랐다. 저녁에는 간성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태수 정성원(鄭聲遠)이 조출한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다음날은 대강역에서 유숙하였고 또 다음날에는 고성에 이르렀다. 양양으로부터 여기까지 바닷길이 모두 2백 여리 인데, 청초호, 영랑호, 광호(廣湖), 소호(蘇湖), 선유담, 화진호(花津湖), 감호(鑑湖) 등을 지나왔다. 이따금 모래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울었고 모래밭 가에는 푸른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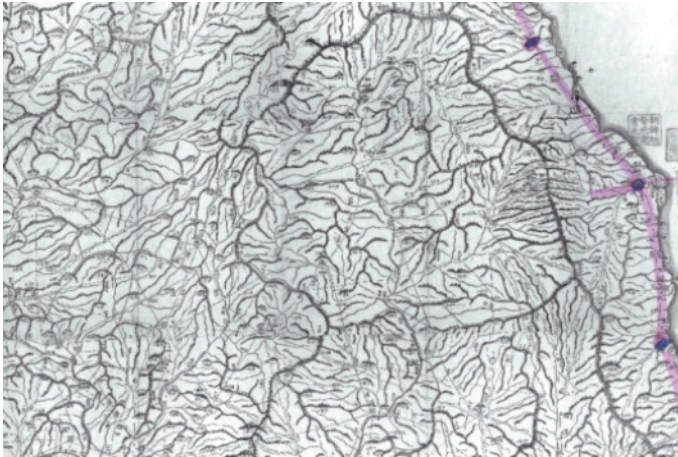
나무가 많았다. 바다 가운데 섬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였고, 혹 석봉이
기궤하기도 했다. 남강(南江)에 아름답게 꾸민 배를 띄워 해산정(海山亭)에 올
랐다. 정자의 동쪽은 바다에 닿아있다.¹⁸⁾

감호(鑑湖)가 등장하는 것이 독특하다. 고성군은 동해안을 따라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관리와 문인이 오고 갔다. 대강리에는 대강역(大康驛)
이 있어서 말에서 잠시 내려 쉬거나 하룻밤을 보내며 시를 남겼다. 북쪽에는
감호(鑑湖)가 있어서 유람하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었다. 감호는 요염하고
아름다워 삼일포, 경포호, 시중호와 뛰어난 경치를 다룰 만하다고 보았
다. 1788년 김응현은 김홍도와 금강산을 그리기 위해 가다가 감호에서 화폭
에 담았다. 그뿐 아니라 청간정, 가학정, 능파대도 그림 목록에 포함되었다.

유경시(柳敬時, 1666~1737)는 가학정과 선유담을 보고 수성에 도착하였
고, 말을 달려 명파역에서 말을 쉬게 하였으며, 남강(南江)을 건너 고성군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유금강산록」에 보인다. 허훈(許薰, 1836~1907)은 청간
정을 지나 능파대에 올랐다. 점심때 건봉사에 이르렀다. 산을 나와 고성 지
역인 대진(大津)에서 잤고, 남강(南江)을 건넜다. 「동유록」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명후(李明厚, 1856~1896)는 간성을 출발해 20여 리를 가서 화
진포에 이르렀다.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니 바닥이 은은하게 보였
다. 오시(午時)가 가까워서야 별산(別山)에 이르렀다. 무송도(茂松島)를 지나
서 명파역에서 잠시 쉬었다. 송도(松島)를 지나 대강역에서 점심을 먹었다.
대강을 출발해 감호로 가는 길에 전 도사(都事) 정전(鄭沔)의 정자에 올랐
다. 바닷길을 따라 10여 리를 가니 현종암(懸鍾巖)이 나왔다.

18) 이동표(李東標),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나은집(懶隱集)』 “八月己巳. 病新愈. 決策爲金剛之遊. 柳進士日祥. 自嶺南至. 其人能詩. 與余善. 遂同行發峴山. 過降仙驛. 入清澗亭. 登萬景臺. 暮抵杆城宿焉. 太守鄭聲遠. 爲設小酌. 明日宿大康驛. 又明日至高城. 自襄至此海. 行凡二百餘里. 歷青草湖. 永郎湖. 廣湖. 蘇湖. 仙遊潭. 花津湖. 鑑湖. 往往鳴沙軋軋. 沙上碧松萬株. 海中島嶼. 松篁鬱然. 或石峯詭恠. 泛彩船南江. 登海山亭. 亭東臨海.”

〈그림 4〉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간성, 고성을 경유하여 금강산 가는 길



출처: 대동여지도

Ⅲ.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한다. 철원을 지나 금강산을 가는 길을 남효온, 윤희 등이 걸었다. 보개산을 지나 철원의 명승인 북관정에 오른 후 김화로 향했다. 김화를 지나 직목역을 통과한 후 창도역에서 금강산을 향해 동쪽으로 갔다. 보리진을 건너고 통구원을 지나 단발령에 오르는 노선이 일반적인 내금강으로 가는 노선이었다. 포천에서 갈말읍을 거쳐 김화로 가는 경우는 더 많았다. 홍인우, 신익성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풍전역 인근에 있는 삼부연폭포를 찾곤 하였다. 창도역에서 북쪽에 있는 회양에 들렀다가 장안사로 들어가기도 했다. 김창협이 경우가 그렇다. 이형운은 창도역과 신안역을 지나 추자령을 넘어 총석정을 구경하고 남하하여 삼일포를 거친 후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그림 5〉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금강산 가는 길



출처: 대동여지도

양대박은 화천 산양역을 지나 금성을 잇는 고개를 넘었다. 금성 땅 서운역에서 꿀을 먹이고 저녁에는 창도에서 유숙하였다. 이하곤은 화천 사창리에서 학령을 넘어 김화에 이르렀다. 안석경은 산양역에서 마치를 넘어 김화로 간 후 금성으로 향했다.

양구에서는 두타연을 지나 문등리로 향하는 길이 내금강까지 가는 최단 경로였다. 안석경의 「동행기」는 양구에서 두타연을 지나 문등현을 넘은 후 문등리를 거쳐 금강산 가는 길이 자세하다. 다른 길도 있었다. 이근원은 양구군 동면 임당리에서 돌산령을 넘어 해안으로 향했다. 해안에서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로 이동한 후, 응봉령을 넘어 속사촌에 들린 후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동해안을 따라 금강산 가는 길은 가는 조선 최고의 유람코스였다. 금강산 뿐만 아니라 관동팔경이 소재하여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걸었다. 간성을 지나 도착한 고성에서 해금강으로 갔다. 외금강으로도 갔으며 북쪽으로 이동하며 관동팔경인 충석정과 시중대까지 구경하기도 했다. 고성은 서쪽에 금강산이 있고, 동쪽에는 해금강이 있는 고을이다. 이 구간은 화가들의 그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권혁진은 강원한문고전연구소 소장이다. 고전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 『사찰기행』(산책, 2024), 『김홍도, 조선의 산수를 그리다』(산책, 2023), 『문학기행』(산책, 2023), 『조선의 핫플레이스』(산책, 2023), 『한탄강 인문기행』(산책, 2022), 『관동 800리 인문기행』(산책, 2020)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고태규. 2018. 「조선시대 금강산 유람기에 대한 여행사(史)적 고찰」. 『관광연구저널』. 한국관광연구학회.
- 박부원. 2020. 「금강산 歷史文化路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숙. 2017. 「17세기 이전 금강산 유람의 경로 및 특징」. 『남명학연구』 55.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 이영숙. 2020. 「경로를 통한 금강산 유람의 변천고찰」. 『韓國漢文學研究』 77. 한국한문학회.
- 정치영. 2003.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제15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정치영. 2014.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강주우(姜周祐). 『옥천연방고(玉泉聯芳稿)』.
- 강헌규(姜獻奎). 『농려집(農廬集)』.
- 김도수(金道洙). 『춘주유고(春洲遺稿)』.
- 김수증(金壽增). 『곡운집(谷雲集)』.
-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 남효온(南孝溫). 『추강집(秋江集)』.
- 노경임(盧景任). 『경암집(敬菴集)』.
- 민치완(閔致完). 『지강문집(芝岡文集)』.
- 박영석(朴永錫). 『만취정유고(晩翠亭遺稿)』.
- 성제원(成悌元). 『동주일고(東洲逸稿)』.
- 송병선(宋秉璿). 『연재집(淵齋集)』.
- 신익성(申翊聖). 『낙전당집(樂全堂集)』.
- 안경점(安景漸). 『냉외문집(冷窩文集)』.
- 안석경(安錫徹). 『삼교집(雪橋集)』.
- 양대박(梁大樸). 『청계집(靑溪集)』.
- 유경시(柳敬時). 『함벽당집(涵碧堂集)』.
- 유운룡(柳雲龍). 『겸암집(謙菴集)』.

윤휴(尹鑄). 『백호집(白湖集)』.
 이경석(李景奭). 『백헌집(白軒集)』.
 이곡(李穀). 『가정집(稼亭集)』.
 이근원(李根元). 『금계집(錦溪集)』.
 이동표(李東標). 『나은집(懶隱集)』.
 이동항(李東沆). 『지암집(遲庵集)』.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
 이의현(李宜顯). 『도곡집(陶谷集)』.
 이종욱(李鍾郁). 『근곡유고(芹谷遺稿)』.
 이진택(李鎭宅). 『덕봉집(德峰集)』.
 이하곤(李夏坤). 『두타초(頭陀草)』.
 이현석(李玄錫). 『유재집(游齋集)』.
 이형운(李炯胤). 『창주집(滄洲集)』.
 정선(鄭澈). 『해악전신첩』.
 정철(鄭澈). 『송강집(松江集)』.
 허적(許積). 『수색집(水色集)』.
 홍여하(洪汝河). 『목재집(木齋集)』.
 홍인우(洪仁祐). 『치재유고(耻齋遺稿)』.

Abstract

Trips to Geumgangsan Mountain

Kwon, Heok Jin *

Geumgangsan Mountain is one of the most famous mountains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vel routes to Geumgangsan Mountain based on these historical accounts. It highlights that trips to Geumgangsan Mountain were made not only from Cheorwon and Goseong but also from Hwacheon, Yanggu, and Inje. They headed east from Changdo Station toward Geumgangsan Mountain after passing through Kimhwa. Other people traveled from Pocheon through Galmal-eup to Kimhwa. Some crossed the pass connecting Geumseong after passing San-yang Station in Hwacheon, while others went from Hwacheon Sachang-ri over Hakryeong to Kimhwa. Some also headed toward Geumseong via Kimhwa after passing Machi from San-yang Station. In Yanggu, the shortest route to Naegeumgang River went through Dutayeon and then to Mundeung-ri. From Imdang-ri in Dong-myeon, Yanggu-gun, travelers crossed Dolsanryeong Pass to reach the coast and then went to Seohee-ri in Seohwa-myeon, Inje-gun, passing Eungbongryeong Pass and stopping by Soksachon before arriving at Jangansa Temple. The route along the East Coast to Geumgangsan Mountain was one of the best travel courses in Joseon Dynasty era. Not only Geumgangsan Mountain but also the Eight Views of Gwandong were located along this path, attracting many travelers. They went to Haegumgang and Oegeumgang River, moving north to visit Chongseokjeong and Sijungdae, one of the Eight Views of Gwandong.

Key Words: Travel routes to Geumgangsan Mountain, Route via Cheorwon, Route via Hwacheon, Route via Inje, Route via Yanggu, Route via Goseon

논문투고일: 2024. 09. 27.

논문심사일: 2024. 11. 14.

게재확정일: 2024. 11. 26.

* The institute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in Gangwon

